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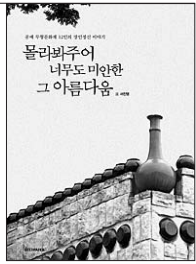
# 북스

Books

## 전통 지키며 시대와 소통하는 匠人의 삶

### 몰라봐주어 너무도... 서진영 지음

대나무로 만든 칼집에 담긴 작은 칼, 낙죽장도 옛 선비들은 허리춤에 낙죽장도를 차거나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며 위기에 처했을 때 꺼내들었다.



또한 칼 자루에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이 담긴 글을 새겨 넣었고, 문인들은 직접 낙죽장도를 만들기도 했다. 곡성 목사동면 공북리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60호 장도장 한병문씨와 전주조교 한상봉씨가 여전히 낙죽장도의 기업을 잇고 있다.

문화기획자 서진영의 '몰라봐주어 너무도 미안한 그 아름다움'은 전통을 지켜내면서 지금 이 시대와 소통하고 있는 12명의 장인들을 만난 책이다.

한병문씨는 마흔이 넘어서야 낙죽장도를 만들기 시작했다. 맥이 끊긴 낙죽장도의 제조 기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우연히 청계천변의 고서점에서 낙죽장도 전시회 도록인 '통인미술'을 찾아냈다.

그는 이후 낙죽장도 연구에 매진했고, 최근에는 현대 문화에 맞는 문화 상품으로 개발하고 있다.

12명의 장인의 이야기는 의·식·주·옷 등 4가지로 나눠 소개됐다. 모두 12개의 공예 분야의 장인들이 주로 다뤄진다. 한산모시짜기 장인, 염색장, 점선장 등을 만나 우리 전통 의상의 아름다움을 찾아

본다.

또 옹기장, 사기장, 나주반장을 만나 음식의 해로움을 없애는 전통 식기의 가치를 알아보고, 소목장, 염장, 나전장을 만나 은근한 매력을 가진 우리 전통 주거 문화의 매력을 더해본다. 백동연죽장, 낙죽장도 장인, 배첩장 등을 만나 우리 조상의 미적 감각과 생활에서 얻어낸 슬기를 찾아본다.

나전칠기의 본 고장인 경남 통영에서 전통을 잇고 있는 나전장 송방용 선생에게 나전칠기는 자식과 다름없다. 아무리 작은 작품이라도 자식같이, 자신이 쓸 것으로 생각하고 만든다고 한다. 송 선생이 나전칠기를 시작한 것은 19살 때였다. 나전칠기 굽음질 분야 최고 명장으로 유명한 송주안(1979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선생이 부친이다.

부친은 아버지로서는 한없이 인자한 분이었지만 스승으로서서는 그렇게 엄격할 수 없었다. 나전칠기에 있어서는 한 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았다.

송방용 선생은 "나전칠기를 만들면서 깨달은 것이 작은 오차에도 미적 감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이 만든 것을 보세요. 그 시절에 각도가, 컴퍼스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각이며, 선이며, 갑판밖에 안 나옵니다."고 말했다.

저자는 전통공예의 명맥을 이어가는 무형문화재 12명을 직접 찾아가 이들의 작업 과정과 그 속에 녹아있는 장인 정신을 들여다본다.

장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전통공예를 접하면서 책 제목인 '몰라봐주어 너무도 미안한 그 아름다움'을 몸소 체험했다고 고백하면서 전통공예에 대한 관심을 당부한다.

〈시드페이퍼·1만7000원〉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전남 무형문화재 제14호 나주반장 김춘식씨 작업 모습.

### 美 작가 생가 방문 기록 색다른 독서체험 여행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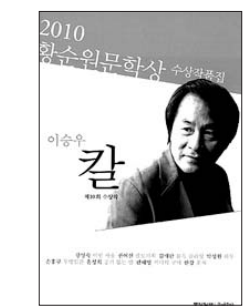
자신의 이름을 단 교육 연구소의 장으로 일하고 있는 홍지연 경민대 부교수가 색다른 형태의 독서체험 여행기 '책걷기'가 아이의 문화지능을 키워주는 독서여행'을 출간했다.



학부모에게 문화지능을 키워주는 책읽기로서 '책걷기'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 직접 초등학교 3학년생 딸과 1년 남짓한 준비 끝에 감행한 미국 여정을 담은 독서여행기다.

뉴잉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작은 아씨들', '주홍글씨', '툼소여의 모험' 등을 쓴 작가들의 생가와 박물관, 그리고 책의 배경이 되는 곳을 찾아 나선 기록이다. 작가의 삶과 세계관을 음미하며 삶의 통찰과 지혜를 얻고 대리 체험할 수 있게 구성했다. 〈에담프랜드·1만3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황순원문학상과 미당문학상의 수상작을 엮은 작품집이 나란히 출간됐다. 올해 10회째를 맞는 문학상의 수상자는 소설가 이승우(51)씨와 장석남(45)씨인.

작품집은 수상자들이 엄선한 작품과 수상자들의 문학세계를 잘 아는 평론가·동료 문인 등의 작가론·인터뷰 등을 특집으로 새롭게 꾸렸다.

큼지막한 크기의 활자로 수상작 제목 '갈'을 세우고 옆에 수상자의 사진을 눈에 띄게 배치한 '갈-2010 황순원문학상 수상작품'은 다채로운 기획으로 우리 시대 최고 소설가 중 한 명인 이승우씨의 문학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작품집엔 수상작 '갈' 이외에 이씨가 직접 고른 작



### 황순원문학상·미당문학상 수상작 작품집 나와

품 두 편이 실렸다. 단편 '무슨 일이든, 아무 일도'와 중편 '첫날'이다.

평론가 정영훈씨는 '아버지를 찾아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승우 깊이 읽기를 시도한다. 현대소설의 가장 낮은 소재 중 하나인 아버지의 문제가 이승우 소설에서는 어떻게 변주되는지를 폭넓게 드러낸다.

후배 소설가 박성원씨의 인터뷰는 현장감 넘친다. 영상 시대 소설 쓰기의 고충, 소설에서의 작가와 독자 등 문학 전반에 대한 이씨의 견해를 들을 수 있다.

또한 올해 본심에 오른 강영숙·권여선·김예란·박성원·손흥규·윤성희·편혜영·한강씨 등의 최종 후보작들도 함께 실렸다. 〈문예중앙·1만3000원〉

'가을저녁의 말-2010 미당문학상 수상작품집'은 대중성, 삶에 대한 진정성, 서정주의 이후 내려오는 한국적 서정성을 모두 갖췄다는 찬사를 받은 장석남

시인의 진면목을 들여다보게 한다.

첫 머리에 수상작 '가을 저녁의 말'을 비롯해 '팬발로 걷기' 등 시인이 엄선한 그의 대표 시 30편이 실렸다. 첫 시집 '새떼들에게로의 망명'부터 지난해 발표한 6번째 시집 '뺨에 서쪽을 빛내다'까지, 시집 6권에서 고루 뽑은 시인이 실려 수상시인의 첫 선집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이밖에 본심 심사위원들이 각자 쓴 심사평, 수상 시인이 쓴 연보, 이기인 시인이 쓴 인터뷰, 김수이 경희대 교양학부 교수가 쓴 평론 '삶의 허기를 향유하다-장석남의 시세계' 등 읽을거리가 풍성하다.

이외에도 수상자 못지않은 좋은 시인들의 시도 함께 만날 수 있다. 고희열·김경미·김행숙·마종기·박주택·박형준·송재학·신용복·허수경 등 본심에 함께 오른 시인 9명이 1년간 발표한 작품이 6편씩 실렸다. 〈문예중앙·1만1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새책



▲꿈의 도시= '공중그네'로 유명한 일본 작가 오쿠다 히데오의 신작 소설. 일본 지방 신도시를 배경으로 불균형적인 경제 발전의 폐해를 통렬하게 그린다. 배경은 가상의 지방도시 '유메노'로, 상점은 망하고 젊은이들은 도시를 떠나버린 쇠락하고 타락한 공간이다. 이곳에서 각자의 꿈을 안고 사는 성별, 나이, 직업, 가치관 등이 전혀 다른 다섯 주인공이 얽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유머러스하면서도 비판적인 시선으로 펼쳐진다. 〈은행나무·1만4500원〉



▲세기말 문학의 새로운 물결=상징주의·데카당스·모더니즘 등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일어난 문학의 새로운 움직임의 쏠림이다. 이 시기는 문학뿐만 아니라 미술과 음악 등 모든 예술 장르에서 틀에 박힌 인습을 깨뜨리고 자유로운 감성을 표출하고자했던 시기였다. 보들레르, 랭보, 와일드와 프루스트, 조이스와 울프 등 세기말을 화려하게 수놓은 작가들을 만날 수 있다. 〈웅진지식하우스·3만원〉



▲소비중독 바이러스 어플루엔자= '어플루엔자'(Afluenza)는 풍요를 뜻하는 '어플루언트'(Affluent)와 감기 바이러스를 뜻하는 '인플루엔자'(Influenza)를 합성해서 만들어진 합성어. 탐욕이 만든 질병, 과소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현대인의 일상을 낱알이 파헤쳤다. 인간의 탐욕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생태계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를 살필고 실천적 처방을 제시한다. 〈나무처럼·2만원〉



▲맹자 교양 강의= 푸에이룽(傅佩榮) 대만대 교수가 맹자를 공자의 유가 사상을 잇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인물이라고 평가하면서 그가 유가 사상을 어떻게 정리하고 실현하려 했는지 살펴본다. 이 사상적 체계의 구체적인 체계를 상세하게 들려주며 현대인인 우리가 왜 맹자의 사상을 배워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설명한다. 〈돌베개·1만2000원〉



▲인왕산 일기= 시인이자 출판사 대표인 저자가 1년 동안 인왕산에 올라 카메라에 담은 서울의 풍경을 글과 함께 엮었다. 저자는 매주 월·수·금요일에는 인왕산, 화·목·토(일)요일에는 인왕산에서 남산을 중심으로 한 서울 풍경을 찍었다. 그리고 그에 맞는 글 한편을 올렸다. 인왕산을 바라보며 1년 사계절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기록한 '신인왕재색도'도 함께 펴냈다. 〈공리·1만5000원〉



▲가난뱅이 난장조= 일본의 시인문학가이자 베스트셀러 '가난뱅이의 역습'의 저자인 마쓰모토 하지메의 신작. 작년 1월부터 일본 웹진 '매거진9'에 연재한 축제와 소통에 관한 글을 묶었다. 새해 벽두 일어난 인간 붓글씨 소동, 노상 금연법 반대를 위한 흡연 미수 대작전 등 기발한 사회소동을 통해 '자립'과 '연대'를 강조한다. 〈이슈·1만2000원〉

▲시네말 다이어리 2= 영화를 통해 삶을 들여다보고 철학에서 답을 찾는 문학평론가 정여울씨의 시네말 다이어리 두 번째 권. 1권이 세상과 사회에 대한 호기심으로 영화를 수영했다면 이번 권에서는 인간의 내면으로 좀 더 깊이있게 접근했다. 〈자음과모음·1만7500원〉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 꿈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할 짓!**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초록우산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실천과 관심만이  
소중한 아이들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10여년 동안 학대피해 아동을 돌보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이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와 함께 하는 꿈  
**초록우산**

아동학대  
신고전화  
후원문의  
**1577-1391**  
**(062)351-3513**